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최희경**

| 목차 |

- | | |
|-----------------|-----------------------------|
| 1. 서론 | 2) 연구의 윤리성 확보 |
| 2. 선행연구 검토 | 4. 연구 결과 |
| 1)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 1)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의
성별 내용 |
| 2) 가족돌봄과 젠더 | 2) 패러다임 모형 분석 |
| 3. 연구방법 | 5. 결론 및 제언 |
| 1) 조사 및 자료분석 방법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19~34세 청년 13명(여 9명, 남 4명)에 대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경험을 가족, 지역 사회, 공공정책, 젠더 규범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주제어를 주제 묶음과 범주로 구성하고 성별로 제시하였으며, 주제들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자원 부족과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부실 속에서 청년에게 전가된 가족돌봄 부담이 과부화된 상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가족돌봄청년의 공통된 조건 및 동기와 더불어 돌봄의 동기 및 특성, 결과에서 젠더 차이가 나타났고, 돌봄의 성역할과 관련된 젠더 규범이 관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6476).

** 신라대학교 hkyung@silla.ac.kr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돌봄 동기에서는 성역할 기대가 지배적이었고, 돌봄 수행에서 가족 돌봄에 강하게 결속된 상태에서 현재의 돌봄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나 전문적 정체성 등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성 참여자들은 주변과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돌봄 경험이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경험이 주변화되고 개인화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으로 통합되지 못하였다.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청년정책의 다양화, 가족돌봄 경력의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통찰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돌봄의 경력화를 통한 노동과 돌봄의 통합,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과 성인지적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연대와 조직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가족돌봄청년, 돌봄 경험, 성별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

1. 서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약물 의존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젊은 사람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일컫는다(시부야 도모코, 2021:6). 정부에서는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칭하였고, 지자체 조례에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청소년기를 제외한 19~34세의 청년¹⁾의 가족돌봄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가족돌봄청년의 간병살인 사건 이후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영 케어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 우리나라에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연령은 공식적으로 19~34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연령대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영 케어러는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며, 가족돌봄청년은 영 케어러 중 19~34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와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²⁾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여 관련 조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을 주로 책임지고 돌보는 주돌봄자를 0.6%에서 1.4%가량으로 추정하고, 최소한의 추정치인 0.6%를 19~34세 청년 인구에 적용해 보면 대략 6만 1,000명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선유, 2023).³⁾

청년기는 청소년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한 시기로, 성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제 상황 악화와 사회적 경쟁의 강화 등으로 성인기 삶으로의 전환

-
- 2)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규모는 과잉축소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만 13~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만3832명 중 가족돌봄청(소)년은 1,802명으로 추정치의 0.29~0.46%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가족돌봄청(소)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조사였다(경향신문, 2022).
- 3)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돌봄자인 가족돌봄청년들은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등을 가진 가족을 주당 평균 32.8시간, 평균 54.7개월 동안 돌보고 있었다. 주돌봄자인 청년의 우울감은 70.9%로 일반 청년(8.5%)보다 8배 이상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한겨레신문, 2023). 동일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4.1%로, 통상 가족돌봄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청년층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이 낮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주돌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함선유, 2023).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 66.4%, 남성 33.6%). 중고등학생 16.2%, 학교밖청소년 3.3%, 대학생 12.0%, 성인 68.4%로 구성되어 있었다. 돌봄대상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순이었고, 2/3가 돌봄대상과 동거하고 있었다. 65.7%가 월평균 소득 199 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으며 돌봄에 따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문화 및 여가 참여 기회 부족', '정신건강 문제', '주거비 부담', '돌봄 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이수영 외, 2023).

과 독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볼 때 성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삶으로의 이행에서 지체나 어려움을 초래하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Greene et al., 201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교육, 심리, 사회관계 등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승·이정은·이의정, 2022; Addo et al., 2021; Stamatopoulos, 2018). 무엇보다 가족돌봄청년은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이행기에 돌봄 부담으로 취업 준비나 경력을 쌓을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성인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과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함선유, 2017; Day, 2019; Hamilton and Adamson, 2013).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구조 변화와 규모의 축소에 따라 돌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종 돌봄 관련 정책이 생겨났으나, 주로 아동 양육 지원이나 노인 돌봄을 책임진 중장년 대상의 돌봄 지원이 다수를 이루면서 청년들의 가족돌봄은 비가시화된 영역으로 존재하였다. 지금까지 가족돌봄을 주로 중, 장년기 여성이 책임지고 있었기에 청년의 가족돌봄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가족돌봄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돌봄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공론화되지 못한채 돌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였다(Boumans and Dorant, 2018).

정치적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청년정책이 제시되면서 2022년에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들은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세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도 어려운데, 이에 더해 가족돌봄의 책임 때문에 사회가 상정한 일반적인 청년기 과업을 수행하기 더 어려운 예외적 존재로서의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부각되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돌봄 때문에 중층적인 어려움을 경험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다른 가족구성원, 사회관계망이나 제도의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특정 연령이나 세대 문제로 축소하기 보다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가족돌봄의 수행 주체에 내재된 권력의 비대칭성이다.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지는 개인의 선택이나 개별 가족의 특수성을 넘어서 젠더 규범, 노동 시장의 지위(소득), 가족관계 등의 복합적인 역동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권력 위계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돌봄 역할을 담당한다(Kittay, 2001).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가족돌봄자 구성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함선유, 2023), 서울시 영 케어러 실태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많았고, 돌봄의 전 영역에서 여성이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이수영 외, 2023).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출간된 가족돌봄청년의 에세이에서는 왜 취업이 아닌 돌봄을 수행하는가라는 시선과 질책을 받는 남성 청년, 가족돌봄 역할을 당연시하면서도 가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이나 대표성에 있어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청년의 경험이 나타난다(윤이재, 2020; 조기현, 2019). 이러한 내용들은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이 성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기의 남성과 여성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이 상이하며, 서로 다른 생애 경험과 정체성 속에서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내용과 의미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한편, 출생률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이 확산된 이후 아동 돌봄에서 젠더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3), 노인 돌봄에서 가족돌봄 자원의 부족으로 남성 돌봄자가 증가하였기에(이윤경 외, 2020), 전체 사회 차원에서 볼 때 가족돌봄 수행의 젠더

격차는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젠더 요인은 다양한 요인들(연령, 소득, 직업, 결혼 여부, 돌봄 자원, 가족관계 등)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기 가족 돌봄은 젠더뿐만 아니라 연령과 취업 상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청년기의 가족돌봄에 대한 분석은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와 돌봄 자원의 고갈 속에서 가족돌봄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며, 가족돌봄의 다양한 요인들간 상호작용과, 이후 생애과정에서의 노동과 돌봄의 재편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관련 지원은 당사자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청년층의 지지와 관심을 받기 위한 정략적 차원의 ‘보여주기식’ 지원, 혹은 취업이나 결혼, 출산 등 사회가 부여한 정상적 청년 역할을 지원하는 획일적인 ‘청년 프레임’에 갇혀있다(조기현, 2022).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실제 가족돌봄을 수행하거나 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욕구에 기반해야 하며, 이들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발선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에 대한 경청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의 경험 드러내기, 의견 표출과 참여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청년(기)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정책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지역사회 관계망, 공공정책,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환경 맥락 속에서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가족돌봄 경험에서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1)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영 케어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긍정적인 영향들이 함께 보고되었다. 영 케어러들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학교생활과 학업, 경제적 문제와 취업, 가족과 사회관계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승·이정은·이의정, 2022; Addo et al., 2021; Stamatopoulos, 2018).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기 돌봄에 소홀해지고, 피로감과 스트레스, 좌절감, 죄책감과 불안, 우울감,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학업 또는 직업과 돌봄을 병행하면서 학업과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고(Becker and Sempik, 2019),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 준비에 집중하지 못해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려워지고, 노동시장 진입의 지체와 주변화로 성인기 이후 지속적인 빈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D'Amen, Socci, and Santini, 2021). 또한 가족돌봄 책임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여가시간 부족으로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다(Rose and Cohen, 2010; Addo et al., 2021). 가족돌봄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대처기술과 일상생활 기술 향상, 조기 성숙과 배려심, 회복탄력성(resilience) 증진, 목적의식, 조직력 및 계획 능력, 유연한 시간 관리 기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감 증진 등이 보고되었다(Addo et al., 2021; Moore and McArthur, 2007).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가시화된 2021년 이후 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권지성·좌현숙·최서경, 2023; 김서영·이재림, 2023; 김아롱·정익중, 2023; 선미정·장정은·김진영, 2022; 임정현 외, 2022; 최윤진·김고은, 2022). 가족돌봄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가족 갈등과 해

체, 경제적 문제, 정보 부족 등)이 가족 돌봄의 계기로 제시되었으며 중첩된 돌봄 부담과 다중적인 역할, 또래와 다른 생활,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공통적 문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공적 지원의 까다로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였으나, 돌봄의 긍정적 의미 부여와 인간적 성장, 가족에 대한 헌신과 애정을 표현하였다.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하는 영 케어러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① 가족돌봄 상황 전개, ② 돌봄 노동, 고단한 삶과의 직면, ③ 세상 속 돌봄 상황 가운데 나의 대응 노력과 변화들, ④ 새롭게 발견한 돌봄의 의미, 그리고 성장 등 4개의 범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길태영, 2023). 서울시의 영케어러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과 자기 돌봄과 자신만의 시간 확보, 청년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에 따른 공감과 위로를 받고 우울감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임정현 외, 2022).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적은 수의 사례 수(46명)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들이어서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개별 주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가족과 친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전체사회)을 고려한 체계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청년기 가족돌봄에서 주요요인 중 하나인 젠더 특성에 주목한 성인지적 연구는 실행되지 않았다.

2) 가족돌봄과 젠더

가족 중에 누가 돌봄을 담당하는가는 개인, 혹은 개별 가족을 넘어서 젠더 역할, 노동 시장의 지위(소득), 가족관계와 친밀성 등의 역동을 반영한 결과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 결과 주로 가족 내 권력 위계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돌봄 역할을 담당한다(Kittay, 2001).

사회적 차원에서도 젠더와 인종, 계급 등의 위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로 돌봄 제공자가 된다(트론토, 2014).

대다수 사회에서 가족돌봄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젠더화된 돌봄의 특성(gendered nature of care)이 제시되었다. 가족돌봄의 책임 할당과 역할 분담, 돌봄의 내용과 수행 방식, 서비스 욕구에서 젠더 차이가 나타난다(Brewer, 2001; Hooyman and George, 2005). 가족돌봄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돌봄 역할에 숙련되기 때문이다(Dwyer and Coward, 2002; Finley, 1995).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고 저임금이나 임시직, 시간제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므로 경제 활동을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Cancian and Olicker, 2000; Lewis and Giullari, 2005; Ware et al., 2003). 그간 돌봄의 탈가족화(상품화와 사회화)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은 가사와 돌봄 시간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는 4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안숙영, 2018). 이는 “돌봄의 여성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의 젠더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 돌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돌봄 제공자 1순위는 비혼 딸이며, 다음 순위로 기혼 딸, 비혼 아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기혼 아들이 돌봄 책임을 맡는다(석재은, 2020; 지은숙, 2017). 노인 돌봄의 경우 배우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⁴⁾ 남편 주돌봄자가 증가하고 아들이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내나 딸 등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우선적으로 할당되므로 노인 돌봄에서 젠더 규범이 약화되었다기보다 가족 내 돌봄 자원의 부족과 대안의 부재에 따른 상황 적응으로

4)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이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경우, 가사와 식사 등 주된 일상적 돌봄에서 배우자, 딸, 아들의 순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느리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윤경 외, 2020).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지은숙, 2017). 가부장적 가족 규범의 해체와 가족 구성의 변화로 노부모 돌봄을 주로 며느리가 담당하던데서 딸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나, 노부모 돌봄에서 젠더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 돌봄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돌보는 아빠’의 등장과 맞벌이 가족 증대에 따른 불가피성, 출생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⁵⁾ 이러한 경향 속에서 남성의 가족돌봄 실천 사례를 통해 “돌보는 남성성”이라는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문현아, 2021). 특히 경제적으로 근대적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20-30대 청년 남성들이 성찰적 개인화 경향을 보이며 고정된 성별분업을 유연하게 만들고 젠더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남성성”을 수행한다고 보았다(김순남, 2021; 김엘리, 2020). 돌봄 참여 남성들이 실제보다 과잉대표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변화된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남성성이 가진 복합성과 유동성은 기존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회구성원에게 전가되는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적 가치는 돌봄 민주주의이다.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조직 원리로 작동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관심과 책임, 돌봄 제공(실행)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고 돌봄 수혜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받음을 의미한다(트론토, 2014). 돌봄의 젠더 불평등은 돌봄의 사회화와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돌봄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 과제이다.

5)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 1천명 중 남성은 약 3만 8천명(28.9%)으로 2019년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중 남성이용자는 약 2천명(10.3%)으로, 동년 대비 2.7배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돌봄의 의미와 삶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특히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 수를 다룰 수 있고, 자료 분석을 단계별로 수행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정밀성과 엄격성을 부여하도록 고안되어 체계적이고 설명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주관적 경험을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적 상황, 중재적 상황, 대응전략, 결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현미라 외, 2010; 글래서·스트라우스, 2017). 가족돌봄청년의 주관적 경험, 가족관계의 역동과 상호작용, 공적 지원의 효과, 돌봄에 대한 가치 및 인식의 변화, 개인적 성장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데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적절하다.

1) 조사 및 자료분석 방법

(1) 조사방법

질적 연구의 조사참여자 수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개별심층면접이 가능한 선에서 10인 내외로 선정한다(패짓, 2001). 가족돌봄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 사업을 수행한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광주시 광산구 등 지자체의 구청 사업담당자, 영 케어러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대학교 등의 기관에 모집을 의뢰하여 조사참여자를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참여

자들이 추천하는 참여자를 추가로 확보해가는 눈덩이 표집방식도 활용하였다. 조사참여 요건은 당시 기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부모나 조부모, 형제나 자매 등)을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혼자 돌보고 있거나, 여럿이 돌보는 경우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과거 돌봄 경험은 1년 이내) 19~34세 청년이었다. 연구자는 조사참여 지원자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연구 목표와 내용, 조사의 내용과 방식, 개인정보활용 동의 여부 등을 설명한 후 지원자 중 조사참여자 13명(여성 9명, 남성 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참여자 선정 후 조사참여자들에게 개별심층면접 조사 질문지를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2023년 1월 4일~2023년 6월 2일에 개별심층면접 조사를 실행하였다. 개별심층면접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참여자가당 1-2회 수행하였으며, 1회당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었다. 개별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은 ①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가족관계) ② 가족돌봄 경험 ③ 가족돌봄 이외의 개인생활 ④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⑤ 자신의 삶에서 가족돌봄 경험의 의미 ⑥ 사회적 요구 등이었다. 보완조사로 구글폼을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자세한 돌봄 수행 내용 및 하루 일과, 개별심층면접에서 누락된 내용, 연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개별심층면접 완료 후 참여자 중 희망자 9명(여성 6명, 남성 3명)을 여성과 남성 집단으로 나누어 2023년 6월 2회에 걸쳐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은 ① 자기소개 및 가족돌봄 상황 소개 ② 가족돌봄 경험 공유 ③ 여성(남성)으로서 가족돌봄의 보람과 어려움 ④ (희망하는) 가족돌봄의 지원 등이었다. 초점집단면접 조사는 2시간30분~3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개별심층면접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참여자간 공통된 경험 공유, 공감과 상호 격려, 유대감, 성별 돌봄 경험(여성(남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깨달음) 등

에 대한 진술이 나타났다.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는 녹음과 대화 텍스트 기록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대면조사는 네이버 클로바노트 앱을 활용하여 음성 녹취와 텍스트 변환을 하였다.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에서 연구자는 주요 내용과 관찰 내용 등을 직접 기록한 조사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참여자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참여자의 특성

연번	연령	성별	하는 일 (직업)	돌봄 대상	돌봄 기간	동거 여부	사적 지원 (보조돌봄자)	공적 지원
1	25	남	회사원	어머니	3년 반	비동거	없음	영케어러 지원
2	31	여	공공근로	아버지, 동생	2년	동거	없음	청년안심일자리, 공공근로
3	26	여	대학생	어머니, 외삼촌	6년	동거	친척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영케어러 지원
4	26	여	프리랜서	아버지	7년	비동거	어머니	난치성 질환자 지원, 영케어러 지원
5	33	여	무직	언니	14년	비동거	비혼 동거인	기초생활수급, 영케어러 지원
6	31	여	연구원	어머니	10년	동거	없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 영케어러 지원
7	27	여	무직	여동생	3년	동거	친척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청년 상담지원
8	34	여	무직	부모	12년	동거	없음	영케어러 지원사업, 공공근로

연번	연령	성별	하는 일 (직업)	돌봄 대상	돌봄 기간	동거 여부	사적 지원 (보조돌봄자)	공적 지원
9	20	남	대학생	어머니	5년	비동거 (사망)	외가 친척	기초생활수급
10	28	여	사회복지사	동생, 아버지	3년	비동거	새어머니	없음
11	21	여	대학생	언니	6년	동거	없음	산정특례 치료비 감면
12	22	남	대학생	친할머니	6년	비동거	친척	없음
13	20	남	대학생	아버지	10년	동거	없음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지원

연령은 20대가 9명, 30대가 4명이었고, 여성 9명, 남성 4명이었다. 현재 하는 일은 대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이 무직, 회사원과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연구원 등의 직업과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었다. 돌봄 대상은 부모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생이나 언니, 할머니, 외삼촌 등이었으며, 3명은 돌봄대상자가 2명이었다. 돌봄 기간은 짧게는 2년에서 최장 14년까지였으며, 7명은 돌봄대상자와 동거, 5명은 비동거, 1명은 돌봄대상자가 얼마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비동거인 경우 주중에 시간날 때마다 수시로 오가면서, 주말에 돌봄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돌봄에서 다른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도움 여부에 대해 6명이 없다고 하였고, 4명이 친척, 어머니나 새어머니, 비혼 동거인 등이 돌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조사참여자를 모집한 관계로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10명)였으며, 2명은 공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

(3) 자료분석 방법

텍스트로 변환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 구글폼 보완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실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연구의 자료분

석 방법인 지속적 비교방법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서로 실행하였다(패짓, 2001). 개방 코딩에서는 모든 텍스트를 차례로 통독하면서 줄 단위로 근거자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개념 등을 주제로 추출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설정된 상호관련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이해 가능한 이름을 부여하여 주제 묶음으로 구성한 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주제 묶음들간 관계를 확인한 후 선택적 질문 과정을 거쳐 개방 코딩에서 추출된 주제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각 주제 묶음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을 체계화하였다. 선택 코딩에서는 주제 묶음을 더욱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범주를 구성한 후,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분석 과정을 통해 추출된 경험과 의미의 개념들을 조직화하여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적 상황, 중재적 상황,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각 요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별도로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윤리성 확보

본 연구의 조사를 실행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1041449-202210-HR-001).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사와 연구에 있어 윤리적 민감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성 확보와 조사참여자의 사적 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였다: ① 조사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하였다, ② 조사 질문 중 답변을 원하지 않는 내용은 답변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③ 사생활이

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모든 연구절차에서 연번으로만 명명하였다, ④ 조사 내용은 연구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개방되지 않았으며 녹화 및 녹취 파일은 텍스트 변환 후 모두 삭제하였다, ⑤ 조사참여자가 면접조사 텍스트 파일을 확인한 후 연구에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있었던 경우 이를 제외하였다. ⑥ 연구자는 조사참여자와의 첫 접촉부터 연락, 조사 및 분석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신속한 연락과 소통을 통해 조사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따뜻함과 공감, 격려와 존중을 표현하였다.

4. 연구 결과

1)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주제어를 주제 묶음으로 제시한 후 이를 범주화하였으며, 성별로 범주와 주제 묶음을 제시하고(〈표 3〉)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각 범주와 주제별로 주제어와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범주와 주제 묶음의 성별 제시

여성		남성	
범주	주제 묶음	범주	주제 묶음
돌봄까지 떠맡다	끊어진 가족관계	돌봄이 떠넘겨지다	끊어진 가족관계
	엮힌데 덮친 문제		엮힌데 덮친 문제
	사랑과 보은		사랑과 보은
	가능한 상황?		가능한 상황?
	당연한 내 책임		나밖에 없음

여성		남성	
범주	주제 묶음	범주	주제 묶음
돌봄을 견디다	너무 벅찬 역할들	돌봄을 견디다	너무 벅찬 역할들
	나의 삶 포기		나의 삶 포기
	돌봄에 묶임		고립된 돌봄
	여자니까		남자라서
돌봄과 삶의 균형	체념과 버티기	돌봄과 삶의 균형	임기응변과 적응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지원 찾기		지원 찾기
함께 잡은 손들	공적 보호망	함께 잡은 손들	공적 보호망
	사적 지원		사적 지원
	당사자 연대		
돌봄이 남긴 것들	여전한 불안	돌봄이 남긴 것들	여전한 불안
	상처의 흔적		상처의 흔적
	나의 성장과 보람		나의 성장과 보람
	돌봄과 나의 미래		
	필요한 지원		필요한 지원

(1) 돌봄까지 떠맡다 vs. 돌봄이 떠넘겨지다

가족돌봄의 동기에 대한 범주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은 ‘돌봄까지 떠맡다’, 남성은 ‘돌봄이 떠넘겨지다’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돌봄의 동기에 있어 여성들은 기존의 가족 역할과 더불어 돌봄 역할의 자발성과 당연함의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남성들은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떠밀리듯 역할을 수용했다는 점이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 묶음에서는 ‘끊어진 가족관계와 ‘엮인데 뗀 문제’, ‘사랑과 보은’, ‘가능한 상황?’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당연한 내 책임’(여성)과 ‘나밖에 없음’(남성)의 주제가 다르게 나타났다(표 4).

〈표 4〉 ‘돌봄을 떠안다’ vs. ‘돌봄이 주어지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여성			남성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 까지 떠맡다	끊어진 가족관계	가출, 이혼, 재혼 후 단절, 불화로 연락 끊음, 가족 해체, 발병 이후 관계 단절, 부모의 무책임과 돌봄 회피, 과거부터의 방임 지속	돌봄이 떠넘겨 지다	끊어진 가족관계	부(모)와의 단절, 갈등과 불화, 도움을 바랄 수 없음, 어른들의 회피와 미루기
	엮힌데 땀친 문제	부모의 경제 능력 상실, 부모의 지원이 원래 없음, 빈곤상태에서 생긴 사고와 질병, 실직, 가족원의 장애(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나의 건강도 나쁨		엮힌데 땀친 문제	생계의 어려움, 실직, 한 부모 가정, 기댈 언덕이 없음
	사랑과 보은	사랑받은 만큼 표현하고 싶음, 은혜를 되갚음, 사랑이 돌봄을 선택하고 유지하게 함,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		사랑과 보은	고마움,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줌, 키워주신데 보답, 나에게 대한 의존과 기대, 뭐라도 하고 싶어서,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가능한 상황?	취준생이어서 돌봄 역할 수용, 대학생이어서 가능, 하교 후 시간 이용, 매인 대가 없음, 돈을 벌지 않으므로		가능한 상황?	대학생이어서 시간이 자유로움, 직장이 없는 상태
	당연한 내 책임	외동딸, 시설 입소에 대한 죄책감,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 가족들이 나에게 기대함, 예전부터 당연하게 생각, 부모에 대한 불신감과 부모 역할 대신하기, 가족의 일이 곧 내 일		나밖에 없음	선택 불가능, 다른 사람 없음,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밖에

① 끊어진 가족관계

조사참여 가족돌봄청년들의 가족관계는 대부분 부나 모의 가출, 이혼과 재혼, 갈등과 불화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내에 돌봄 요구가 발생했을 때 자원 자체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 5명이 연장자들(부모나 친척들)의 무책임과 회피, 과거로부터의 방임으로 미성년자 시기부터 가족돌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가족들의 관계 문제로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2)는 조사참여자의 진술은 가족 문제가 청년돌봄자에게 전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② 얽힌데 덮친 문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구조, 주변의 지지망 등은 원래부터 취약한 상태였다. 한부모가족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주변에 도움을 줄 친척이나 관계망이 부족하였다. 거기에 실직과 산재사고,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발병과 장애 등으로 부모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가족 중에 중증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빈곤과 실업, 장애와 질병의 악순환 속에서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9) 덮쳐왔다고 한다.

③ 사랑과 보은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돌봄의 동기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은을 이야기하였다. (조)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기에 돌본다는 점은 여성과 남성이 공통적이었다. 다만, 남성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내 가족을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12)이나 “사명감”(13) 등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랑이 돌봄을 선택하고 유지하게 했다..... 정말 할만큼 한거 같다. (6)
 사랑받은 만큼 뭔가 해드리고 싶었다. 그게 여기까지 오게했다.... 나에게 많이 의지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13)

④ 가능한 상황?

대다수의 조사참여자들이 돌봄을 맡게 될 당시에 자신이 대학생이거나 휴학 상태,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시간이 많고 “매인데가 없는”(7) 상황이 작용했다고 하였다. 미성년자인 중고생때부터 돌봄을 수행한 경우, 취업한 어른들을 대신하여 학교 이후 시간에 틈틈이 돌봄을 수행하였다. 또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돌봄 역할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돌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나 청년이 가족돌봄에 투입된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 사회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봄 역할이 떠넘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취준생이었으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취업을 하고 있었다면 돌봄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2)

⑤ 당연한 내 책임 vs. 나밖에 없음

돌봄의 동기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돌봄이 당연한 본인 책임이 되었는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수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외동딸 등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지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돌봄이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는 점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시작된 돌봄 역할의 연장이거나, 가족들의 기대 등으로 당연하게 돌봄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특히 어머니)의 돌봄 역할 방기나 회피를 본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한부모가족이거나 가족이 어린 동생밖에 없고 돌봄 대상과 친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등, 불가피한 상황적 요인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돌봄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가족돌봄의 조건과 동기에 대한 이상의 결과는 가족돌봄이 젠더(성 역할 규범)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되며(안숙영, 2018; Brewer, 2001;

Hooyman and George, 2005; Dwyer and Coward, 2002), 미혼의 딸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된다는 점(석재은, 2020; 지은숙, 2017)을 재확인해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 수의 축소와 해체 등으로 가족돌봄 자원 자체가 부족할 경우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취업 여부나 돌봄대상자의 선호, 가족관계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돌봄을 건디다

가족돌봄의 수행과 관련된 ‘돌봄을 건디다’ 범주에는 여성과 남성 각각 4개의 주제 묶음이 나타났다. ‘너무 벅찬 역할들’, ‘나의 삶 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 주제 묶음이었다. 여성은 ‘돌봄에 묶임’과 ‘여자니까’라는 주제 묶음이, 남성은 ‘고립된 돌봄’과 ‘남자라서’의 주제 묶음이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돌봄을 건디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을 건디다	너무 벅찬 역할들	여러 명을 같이 돌봄, 나에게만 의존하고 나는 도움 받지 못함, 기약 없는 돌봄, 학업 및 아르바이트와 돌봄 병행, 생계 책임(가장 역할), 가족 갈등 증대, 항상 변이웃 상태, 증상 악화(폭력, 발작 등)시 감당 못함, 장애를 감추려는 가족과 해결하려는 나	너무 벅찬 역할들	모두 내 책임, 상황에 압도됨, 두 집 살림, 많은 돌발상황, 아픈걸 지켜보기 힘들, 내가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는 아무도 안챙겨줌, 외출 타기(빠끗하면 바로 죽음), 지속적 긴장상태 유지
	나의 삶 포기	휴일 없음(휴일이 더 바쁨), 개인 시간 없음, 정상진료 이탈,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 중단, 대학진학 포기, 자격증과 실습 등 스펙 포기와 공백, 원하는 전공 포기, 성적 하락에 따른 장학금 탈락과 학자금 대출 악순환, 나 자신에 집중하고 미래 준비할 여력이 없음, 연애와 사랑 포기, 더 나은 삶 희망 접음, 돌봄 위해 지역 이동, 지인(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짐	나의 삶 포기	학교 중단, 성적과 학점 포기, 상급학교 진학 포기, 내 생각 포기, 대인관계와 친구 관계 최소한으로 유지, 공적 생활의 신뢰(약속, 역할, 책임분담 못 지킴) 상실, 휴식과 수면 포기, 만성피로 상태, 여기는 잠과 누워있기로 채움, 규칙적 식사 어려움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범주	돌봄에 묶임	나와 돌봄이 항상 결부됨, 모든 것(일상, 시간, 감정, 욕구)을 돌봄대상에게 맞춤, 가족돌봄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 돌봄과 내 미래가 분리되지 않음	고립된 돌봄	고민 나눌 사람이 없음,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움(공통화제가 없음), 혼자 섬에 갇힌 듯, 맞게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섬, 다른 사람에게 (돌봄에 대해) 말하지 않음
	여자니까	청년여성 자살은 본인보다 가족관계 때문, 남자 가족원들의 이기적인 삶, 착한 딸이라는 가스라이팅, 딸들은 지원은 못받고 돌봄만, 아들이었으면 맡기지 않았을 일, 억울한 마음, 엄마의 역할이 딸에게 대물림, 엄마가 돌봄 책임을 딸에게 전가	남자라서	군대생활이라 생각, 사회적 기대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다름(취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선), 돌보는 남자를 불편해함, 정서적 돌봄 기술 부족, 일상돌봄(배변, 목욕)의 민망함과 불편

① 너무 벅찬 역할들

가족돌봄청년들은 모두 돌봄과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을 기약 없이 병행하고 있었고, 별거하는 경우 두 집을 오가야 하고, 여러 가족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도 많았다(2,3,5,8). 이들은 수면과 휴식을 줄여가면서 다중 역할과 과중한 책임을 감당하였으며, 지속적 긴장 상태와 압박감, 수많은 고비와 위기 속에서 “압도된 상태”(9)였다. 다른 가족이 돌봄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위태롭게 지속되는 돌봄 상황은 “빼앗하면 바로 죽음인 외줄 타기”(7)로 비유되었다. 특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폭력과 자해 등 돌발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은 돌봄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위태로운 상태의 돌봄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6)이었다.

② 나의 삶 포기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돌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개인 시간이나 휴식, 여가시간을 포기하고 돌봄을 수행하였다. 가족 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중단, (돌봄과 관련된) 전공으로 변경, 상급학교 진학 포기, 성적 하락에 따른 학자금 대출 증가, 경력(스펙) 포기과 진로 공백, 연애와 대인관계 포기, 지역 이동 등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일부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은”(8) 상태라고까지 하였다. 청년기에 경험하거나 배워야 할 것,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포기하고 규범적인 생애경로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박탈감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부분을 다 숨기고, 나도 그게 약점이 되어서 연애를 지속하기 어려웠다.... 나는 사랑도 할 수 없고, 미래의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때문에.....(5)

③ 돌봄에 묶임 vs. 고립된 돌봄

여성과 남성의 돌봄 수행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돌봄대상과 자신이 항상 결부되어있고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모든 일상과 시간, 정서와 욕구 등이 돌봄 대상자에게 맞추어지고 본인의 직업, 진로나 미래 계획에서도 자신보다 돌봄대상자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이것은 가족돌봄이 여성의 삶에서 매우 크고 무겁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과거, 미래, 현재와 동생 돌봄이 반드시 결부된다. 직업(사회복지사)을 선택할 때부터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였고, 미래계획에도 동생에 대한 돌봄 책임이 결부된다. (10)

나는 언니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릴때부터 분리가 되지 않았다.... 최대한 언니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직종을 생각해야 했다..... 이렇게 묶여서 계속 같이 가야 한다. (11)

남성 참여자들은 주변에 가족돌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도 타인의 공감을 구하기 어렵고 친구들과 공통 화제가 없으며, 돌봄에 대한 고민이나 의문이 생겨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남성 청년이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적이 없어서 “혼자 섬에 갇힌 듯한”(13) 느낌이 든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가족돌봄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려 하였다. 남성청년의 가족돌봄은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고립된 경험으로 존재하였다.

나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른 사례나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확신도 없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가 제일 힘든 부분이다(1)

④ 여자니까 vs. 남자라서

돌봄 수행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진술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딸(여성)이기 때문에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부당하고 화가 나며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경우 가족 내에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은 돌봄과 상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머니와 딸이 가족돌봄을 감당하였다. 어머니와 딸의 가족돌봄 역할이 연결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돌봄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딸이 돌봄을 이어가는 경우와(3,4,6), 어머니가 돌봄 역할을 하지 않아서 딸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경우(5,7,10)로 나뉘어졌다.

사람들이 나한테 착하다, 역시 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거 진짜 듣기 싫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착해서 하는게 아닌데..... 웬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같아서 너무 짜증난다. (4)

내가 아들이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남자에 들어있다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게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10)

오빠는 오로지 1인분의 삶만을 살고, 아버지는 자기 감당도 안되는 분이다. 엄마가 아버지 감당하시다가 병을 얻고 또 엄마 돌봄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대물

림 구조.....(6)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희들끼리 지금까지 다 했는데, 왜 내가 지금 해야 되냐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그 후에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 (7)

남성으로서의 돌봄 수행에 대해 군대 생활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군대보다 보람 있는 경험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직장생활에 지장 많겠다”(1), “나중에 취업 못하면 어찌냐”(12) 등 청년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화된 시선 때문에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도 하였다. 병원 같은 곳에서는 대다수의 돌봄자가 여성이어서 남자 돌봄자의 존재 자체를 낯설거나 불편해하는 경험을 하였다. 돌봄 대상이 여성인 경우 (1,9,13) 배변이나 목욕 등 일상 돌봄에서 민망함과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 대상의 욕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돌봄 기술이 모자라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남성들의 경우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돌봄 영역에서 남성의 희소성 때문에 돌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돌봄 경험과 기술의 부족으로 돌봄 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까 (돌봄을) 군대 왔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군대보다 보람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거니까. (1)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다. 사회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12)

여성들은 더 꼼꼼하고 내가 할머니 방식에 잘 못 맞춰서 힘든 것도 있다. 화장실이나, 옷을 입혀드릴 때도 민망하고.... 다 이기고 해야 하지만, 불편함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 (13)

(3) 돌봄과 삶의 균형

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돌봄과 삶의 균형을

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범주화되었다. 여성의 진술에서는 ‘체념과 버티기가, 남성은 ‘임기응변과 적응’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지원 찾기’는 여성과 남성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표 6〉 ‘돌봄과 삶의 균형’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과 삶의 균형	체념과 버티기	정신나간 채 그냥하기, 해탈 수준, 그만둘 방법이 없어서 계속함, 사는게 아니라 견디고 연명함, 돌봄 덕에 삶 유지, 돌봄 대상자와 서로 의지	임기응변과 적응	부딪히면서 실수하며 터득하기, 임기응변, 터지면 막는 식으로, 무작정 대처하기, 긍정적 사고, 생활 적응,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 당황하지 않기, 생활과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가능한대로 내 일 계속하기, 의도적으로 혼자 시간 확보, 내 시간에 집중하기, 건강 유지와 운동, 종교, 정신과 치료받기, 나에게 보상하기, 친구들과 계속 관계 유지, 마음돌봄 사업 참여, 자기 돌봄조차 돌봄을 더 잘하기 위함, 돌봄 대상과 생활 분리, 마치면 빠져나오기, 별거, 독립 준비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시간내서 쉬기, 영양제 먹고 식사잘 챙겨먹기, 밝게 웃으며 살려 노력, 계속 상담받기, 나만의 시간 확보, (일부러) 이기적이며 노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만들기, 친한 친구나 이성친구와 만남 이어가기, 돌봄 대상과 생활 분리,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 마치면 빠져나오기, 별거
	지원 찾기	서울 아닌 지방은 지원 부족, 서비스 알아보고 지원과 관리 혼자 다 하기(정보제공이나 안내 없음), 인터넷 해매기, 중증만 혜택(사각지대)받고 대부분 실질적 지원 없음, 접근성 저하와 행정절차의 복잡성, 기준의 엄격성, 지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자포자기, 청년 지원은 취업과 결혼에만 집중됨, 돌봄과 근로에 대한 모순된 요구, 사생활 공개와 굴욕감(자존심 포기), 국가는 가족의 독박돌봄 강요	지원 찾기	너무 복잡하고 빈틈이 많은 지원 서비스, 가능한 지원이 없음, 지원과정이 너무 까다로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발로 땀, 거절 당함과 불신

① 체념과 버티기 vs. 임기응변과 적응

여성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체념이나 그냥 버티기와 같이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자체에 압도되거나 소진의 결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봄 수행을 위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거나, 돌봄 대상자의 존재가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진술이 많았다. 이는 돌봄으로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지만, 돌봄을 해야 하기에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돌봄 수행자와 돌봄 대상자가 서로 의존하며 삶을 지탱하는 모습은 여성들이 돌봄 대상 가족과 정서적으로 매우 밀착된 상태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는 해탈한 느낌? 보통사람 멘탈로는 할 수가 없다. 정신이 늘 반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산다. 지금 당장 다 죽었으면, 다 멸망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아빠 보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4)
 힘든걸 티 낸다고 해서 바뀔게 없으니, 그냥 이렇게 지낸다. 버티는 거지 살고 있는게 아니다. (10)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거 같다. 안그랬다면 생을 포기하고 지금의 내가 없었겠지. (7)

남성참여자들은 생소한 상황에 그냥 부딪히거나 계속 실수하면서 터득하고 그때그때 문제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시간이 가면서 처음보다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성들은 과업이나 상황에 더 집중함으로써 생활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그때 쓰나미가 몰려오면 물 맞으면서 힘이 있으면 수영을 하고, 터지면 또 막고 이런 식으로.... (9)
 황당하고 상황이 이해가 안가니까 그냥 닳치는대로 막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터

특해 나갔다.....대학교 와서는 성인이고, 많이 적응이 되어서 훨씬 잘 대처하게 되었다. (12)

② 자기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가족돌봄과 분리하여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가능한대로 학업, 원래 하던 자신의 일, 운동, 종교, 친구들과과의 만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식사 챙기기, 긍정적 사고, 스스로 보상하기, 마음돌봄 서비스나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적극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또한 돌봄을 마치면 빨리 빠져나오고 돌봄 이외의 시간에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자 하였다. 자기돌봄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돌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시간이었다. 더 적극적으로는 돌봄대상과 주거를 분리하거나 별거, 각자의 독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올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없어진다.....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심분 활용하고 집중하려고 한다. (5)

의도적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이 시간조차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사실 돌봄을 더 잘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다. (6)

동생이 같이 안살고 옆집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현타가 왔다.....동생은 나를 떠날 준비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나도 이제 독립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0)

③ 지원 찾기

조사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족돌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공적 지원을 찾아다녔다. 특히 안내자나 정보가 없어 “맨땅에 헤딩하듯이”(4), 혼자서 인터넷과 관련 기관을 직접 헤매고 다니며 가능한 지원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지원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 까다

로운 과정 등으로 좌절하였고, 어렵게 지원을 받았지만 너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각종 청년 관련 지원들은 주로 취업과 결혼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돌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성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모순된 자격 기준 때문에 가족돌봄청년으로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지원(경제적 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가능한 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고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거듭 탈락되면서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다 맡기려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다.

사생활 다 말하고 복잡한 절차랑 필요한 서류도 무지 많았고 기관마다 다 다르고.....근데 이러저러해서 결국 안된다고...제도는 다 완비된거 같은데 빈틈이 너무 많아서 받기가 힘들다. (1)
엄마와 동거인이 되면 서비스 시간도 줄고 나머지는 내가 다 돌보라는 의미인데..... 또 내가 근로능력이 있으니 생계비가 안나온다고 했다. 결국 주민등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다. (6)

(4) 함께 잡은 손들

‘함께 잡은 손들’ 주제 묶음은 조사참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개별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로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원과 도움을 의미한다. ‘공적 보호망’과 ‘사적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경우 당사자 연대가 추가 주제 묶음으로 제시되었다. 남성들은 아무도 당사자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총 4명) 관련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7〉 ‘함께 잡은 손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함께 잡은 손들	공적 보호망	영케어러 지원사업의 도움(돌봄자에 집중),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 등 공공지원 덕에 돌봄 병행 가능, 자립 기반 제공, 지원을 감사히 무조건 받음, 복지전문가들의 헌신과 유사가족 같은 관계, 공적 지원 덕분에 생을 포기하지 않음, 너무 적은 혜택	공적 보호망	영케어러 지원사업의 도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의 도움, 학교를 통한 도움, 외부기관 연결, 공적 보호시스템 안에 있었기에 살아남음
	사적 지원	가족 중 유일한 기댈 곳(언니, 새엄마, 이모, 비혼배우자, 사촌동생), 나를 나 자신으로 봐주는 사람들, 편견 없는 주변인들	사적 지원	부정기적인 친척들의 도움
	당사자 연대	돌봄자 정체성, 목소리 내기와 공동행동 시작, 영케어러 지원사업 참여자 모임과 공모전 준비, 다른 가족돌봄청년의 존재만으로 위안과 의지가 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모임 참여,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		

① 공적 보호망

조사 당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조사참여자들 중 두 명(10, 12)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참여자 모집이 관련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영케어러지원사업은 가족돌봄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1, 3, 4, 6, 8)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돌봄대상 가족이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3,6).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의 치료비 감면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가능한 지원은 모두 받으려 노력하였다. 공적 지원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요한 보호망의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돌봄과 학업,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헌신적인 사회복지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것이 없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 (9)

(가족과 활동지원사) 네 명이 푹푹 멍쳐서 거의 유사가족 수준으로 함께 잘 해 나가고 있다. 그분(활동지원사)은 내 인생의 인연이다. (3)

② 사적 지원

전반적으로 조사참여자들은 돌봄 자원이 부족하고 사적 지원 또한 빈약하여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였다. 특히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두 명이 부정기적으로 친척의 도움을 약간 받을 뿐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참여자들은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들(다른 가족, 친척, 주변인)이 있어서 많은 의지가 된다고 하였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없이 지내는 주변인들도 심리적 지지가 된다고 하였다.

③ 당사자 연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영케어리지원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들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자 중 2명이 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1명은 발달장애 인형제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족돌봄 경험을 계기로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공모전과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돌봄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

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다른 가족돌봄청년과의 연대를 통해 “돌봄자 정체성”을 수립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당사자 연대에 나타난 인식은 이들이 다른 가족돌봄청년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적 돌봄자 정체성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10)
 대구 청년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활동과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도 돌봄자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나같은 사람이 말해야 하고 경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5) 돌봄이 남긴 것들

가족돌봄은 조사참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여전한 불안’과 돌봄 과정에서 받은 고통으로서의 ‘상처의 흔적’, 돌봄 과정을 견디며 이루어낸 ‘나의 성장과 보람’이 주요 범주로 나타났으며, 많은 여성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돌봄과 자신의 미래를 연결시키는 ‘돌봄과 나의 미래’ 범주가 나타났다. 돌봄 경험을 통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지원에 대한 욕구는 ‘필요한 지원’ 범주로 묶었다.

〈표 8〉 ‘돌봄이 남긴 것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이 남긴 것들	여전한 불안	경제적 곤란(아무 대책 없음), 현재 생활 지속 가능성 불확실, 위태로운 균형상태, 더 악화됨에 대한 불안, 미래에도 돌봄이 지속될 것 같은 불안	여전한 불안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름, 경제적 어려움, 수급 취소 불안감, 발목 잡힌 느낌(경쟁에서 뒤처짐)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상처의 흔적	신체적 질병(근골격계 질환, 압진단)과 정신적 문제(우울증, 공황장애, 게임중독 등), 생사의 기로(자살사고와 시도), 절망감, 분노와 우울, 정체되고 뒤쳐진 느낌, 청년기에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움, 사회생활의 의욕 상실, 돌봄 대상자와 관계 악화, 다른 가족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실망, 국가에게 버림받은 느낌		상처의 흔적	신체질환(만성피로, 디스크), 상실감(성장할 기회와 내게 집중할 시간을 잃음), 낙인감, 자아실현 욕구의 좌절, 우울증, 혼자 다 안고가려는 태도, 가족관계 악화, 집안 어른들에 대한 원망과 불신
나의 성장과 보람	가족관계 개선, 성취감과 효능감(혼자 힘으로 해냄), 성장의 밑거름, 삶의 전환점,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미래가 두렵지 않음, 견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희망의 근거), 무뎠고 침착해짐, 삶의 방향성 설정, 죽음에 대한 성숙한 태도, 후회하지 않음,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		나의 성장과 보람	일찍 철들, 책임감, 자부심, 워라밸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음, 타인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수립(내 자신으로 서게 됨), 일상생활 자립, 강한 생활력, 후회 없음, 나의 강점과 미래의 자산을 얻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지식 생김, 사회복지전문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돌봄과 나의 미래	내 진로의 뿌리로서의 돌봄, 가족돌봄으로 표창받음, 돌봄 후 진로 변경, 가족돌봄이 직업 전 문성에 도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구상, 정부에 제안하고 발언, 가족돌봄 관련 공모전 참여와 스피치 쌓기			
필요한 지원	생계지원(돌봄 수당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장, 전문적인 상담 지원, 여가 및 문화 지원(돌봄자 집중 지원), 찾아가는 지원(안내, 정보제공,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 (정신장애, 중증 질환 등)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확대, 자조집단 구성, 가족간병휴가 확대(모든 가족 다 포함), 취업시 돌봄 경력 인정, 군대 면제나 대체복무		필요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장, 가족돌봄청년(온라인)전담 창구, 지속적인 심리상담, 욕구와 상황에 따른 청년 지원

① 여전한 불안

조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돌봄의 결과 중 가장 보편적인 진술은 다중적인 불안이었다. 공통적으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데 따른 경제적 불안을 가장 많이 표출하였고, 위태로운 돌봄 상황이 언제까지 지탱될 수 있을지, 돌봄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많았다. 돌봄 이후를 상상하기 어렵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삶과 진로에 대한 불안도 심화되었다.

돌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나도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유나 해방이 있을까?..... 상태가 더 나빠지리라는 불안감과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다. (6)

② 상처의 흔적

조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수행하며 갖게 된 고통과 어려움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랜 직접 돌봄에서 오는 신체적 질병(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암 등)과 심리적 문제(우울증, 공황장애, 게임중독 등)를 겪었으며 정서적으로도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학업이나 진로 선택에서 자아실현 욕구를 포기한데 따른 상실감과 좌절감,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여성들의 경우 자살 사고나 시도, 극단적인 절망과 번아웃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돌봄대상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신도 표출되었다.

책임감을 얻은 대신 잃은게 너무 많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성장할 시간을 잃었다. (13).

(돌봄을 하며) 20대를 지나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왔다. 건강도 상하고, 친구도 없고, 가족관계도 박살나고 스스로도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의심밖에 없다.... 번아웃 상태처럼 일도 싫고, 사회생활도 싫고, 해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서..... (5)

③ 나의 성장과 보람

가족돌봄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사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보람을 느꼈으며 가족돌봄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로도 작용하였다. 어려운 일들을 견뎌 낸 후의 성취감과 효능감, 삶의 정체성 획득, 강한 생활력과 건강의 중요성 인식, 인간과 삶에 대한 성숙한 이해 등이 개인적 차원의 성장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복지나 지원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기고,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나에게 가족돌봄이란 재수하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 하고나면 많은 교훈을 얻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1)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힘들었는데..... 다 이겨냈으니 앞으로 나는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2)

(간병생활) 속에서 뭐라도 견져보자, 내 젊음과 청춘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느리게 가고 있을 뿐이야라고 생각한다. (4)

퍼즐을 100조각 맞춰야 하는데 이제 3-4조각 맞춘 느낌. 이걸 모두 그래도 내가 해낸 것이다. 맨땅에 헤딩해가며. 나머지 조각들은 맞추기 좀더 쉬워지겠지? (7)

④ 돌봄과 나의 미래

여성참여자들의 경우 가족돌봄과 자신의 미래나 진로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진로를 가족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나 사회복지로 선택하였으며(3,6,10),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전공을 변경하였다(11). 관련 진로로 취업한 경우 가족돌봄 경험이 직업 전문성에 도움이 되었고 가족돌봄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고 관련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가족돌봄 경험을 경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조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공청회나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에게 가족돌봄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정체성을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족돌봄을 개인적 불행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 노동으로서 연결하여 진로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가족돌봄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언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엄마 돌봄을 통해 나의 진로를 만들어갔다. 엄마의 돌봄을 통해 나의 진로 설정으로 이어졌다. (6)

넘어져도 동전을 쥐고 일어나라는 말이 있는데.....동생 때문에 진로가 결정되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결시켜보려고 한다. (10)

내 인생이 좀 지속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로를 그렇게 설정했다. 어차피 언니를 안고 가야 된다면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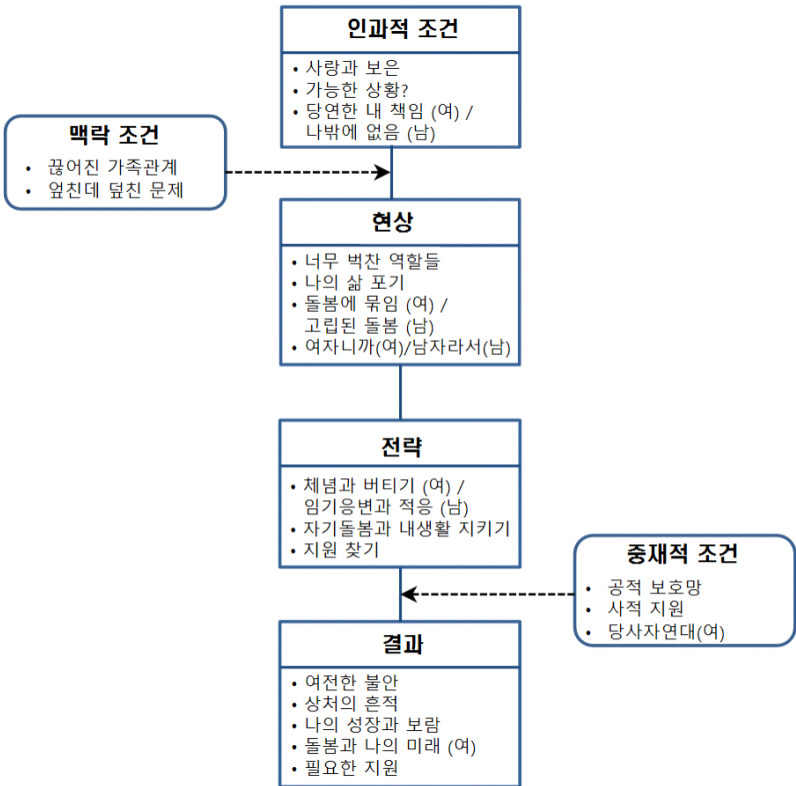
⑤ 필요한 지원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돌봄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생계) 지원이었으며, 이는 돌봄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청년기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 등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와 시간 연장이 많이 제안되었으며, 돌봄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이거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욕구도 높았다. 청년정책 대상에 가족돌봄청년이 포함되어야 하며, 돌봄대상이 아닌 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제공, 서비스 안내와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와 전담 창구 설치, 가족돌봄 휴가 확대, 여가 및 문화 지원 등)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취업시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 가족돌봄청년의 군입대 면제나 연기, 대체복무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취업할 때 공백으로 남아있고, 스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할 때 가족돌봄에 대한 가산점, 경력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노력을 할만큼 했고, 남들이 자격증 딸 때 가족돌봄을 했으니까. (6)

2) 패러다임 모형 분석

축 코딩을 통해 근거자료에 의해 도출된 주제 묶음을 재배치하고 각 범주들을 중심으로 주제들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1〉). 패러다임



〈그림 1〉 가족돌봄청년의 성별 돌봄 경험 패러다임 모형

임 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범주들과 주제 묶음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현상을 있게 하는 주체의 인과적 조건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상황 조건으로서의 맥락조건, 핵심 현상, 개인의 대응 방식으로서의 전략, 이를 지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중재적 조건, 그리고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패러다임에서 중심 현상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으로 ‘너무 벅찬 역할들과’ ‘나의 삶 포기’, 여성의 ‘돌봄에 묶임’과 남성의 ‘고립된 돌봄’이었다. 각각 ‘여자니까’, ‘남자라서’ 경험하는 가족돌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은 다중적인 역할 부담을 지고 학업과 진로,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을 포기한채 가족돌봄을 수행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족돌봄과 자신의 삶이 지나치게 결부되는 특성을, 남성은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돌봄을 수행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현상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가족돌봄의 공통 인과적 조건은 ‘사랑과 보은’, 가족돌봄의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여성은 ‘당연한 내 책임’, 남성은 ‘나밖에 없음’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 외에도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학생, 비취업자 신분이 가족돌봄의 조건이 되었고 여성은 가족돌봄의 우선적 책임에 대한 성역할 기대가, 남성의 경우 가족돌봄 자원의 결핍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한편, 맥락 조건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차이와 특성, 상호작용 등을 형성하는 상황과 여건들을 의미한다. ‘끊어진 가족관계’와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의미하는 ‘엷친데 덮친 문제’가 맥락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이혼과 재혼, 가출과 별거, 가족 갈등에 의한 단절 등은 가족원들이 협력하여 돌봄역할을 분담하기보다 특정인에게 부담이 집중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실업과 산재사고, 과거부터 지속된 빈곤은 소득활동 중단과 의료비 지출 증가라는 이중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약한 사회경제적 보

호망이 청년기 가족돌봄의 사회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수행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하였다. 이때 전략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문제를 조절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주체의 대응방식을 의미한다. 여성은 ‘체념과 버티기’, 남성은 ‘임기응변과 적응’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통적 대처방식으로 제시된 ‘자기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가족 돌봄과 분리하여 자신만의 생활을 지키면서 돌봄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조사참여자들이 ‘지원 찾기’를 통해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으나 지원 정책의 부재나 부적절함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얻기 어려웠다.

상황에 대한 주체의 대응방식으로서의 전략은 주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들인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결과로 나타난다. 공통의 중재적 조건으로는 ‘공적 보호망’과 ‘사적 지원’이 있었다. 생계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 등은 가족돌봄과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호망이 되었으며 친척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존재하였다. 여성 참여자 중에서는 가족돌봄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당사자 연대’로 상호지지와 사회적 돌봄자 정체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돌봄 상황을 주변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지와 지원을 받는 반면, 남성들이 돌봄을 주변인과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 중재적 조건과 결합됨으로써 결과에도 영향을 다르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로는 위태로운 돌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여전한 불안’, 가족돌봄이 남긴 부정적인 결과로서 ‘상처의 흔적’, 돌봄 속에서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로서 ‘나의 성장과 보람’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여성 참여자들 중에서 가족돌봄과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필요한 지원’으로 제시하였는데, 경제적 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지

원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족돌봄의 동기에서 가족돌봄 자원의 부족과 함께 돌봄에 대한 성역할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며(‘당연한 내 역할’),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가족돌봄 역할이 전수되거나 대체됨으로써 ‘돌봄에 묶임’이라는 가족돌봄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성역할 규범과 돌봄 대상에 강하게 결부된 특성이 현재의 가족돌봄 경험을 사회적 진로와 연결시키거나 전문적 정체성으로 발현되는 결과(‘돌봄과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돌봄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정도가 크고 가족돌봄과 자신의 생활이 강하게 결속됨으로써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때로 심각하고 극단적인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나타났다.

남성 참여자들의 가족돌봄의 동기는 대체로 가족돌봄 자원의 절대적 결핍(‘나밖에 없음’)이었으며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남성 돌봄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 가족돌봄과 취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대의 차이, 남성 돌봄자의 희소성 등으로 가족돌봄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고립된 돌봄’으로 나타났다. 남성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족돌봄 경험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적극적으로 돌봄 경험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정체성화하기보다는 돌봄의 주체임에도 주변화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남성참여자들이 개인 전략에서는 적응적이었지만 중재적 조건에서 사적 지원이나 당사자 연대에 소극적인 내용과도 연결된다. 가족돌봄의 결과에서도 남성참여자들은 가족돌봄에 따른 개인적 ‘성장’과 ‘보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과 미래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기보다 가족돌봄 경험이 초래할 직업이나 진로의 지체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경험을 알아보고 이를 성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부모나 조부모, 형제나 자매 등)을 주 15시간 이상 6개월 동안 넘게 혼자 돌보고 있거나,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19~34세 청년 13명(여 9명, 남 4명)의 조사참여자에 대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주제어를 주제 묶음과 범주로 구성하고,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가족돌봄은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규모 축소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돌봄을 초래하는 질병과 장애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지망이라는 환경 조건 속에서 개별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이 가족 내 권한과 위계상 더 약한 존재인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맡겨지고, 가족돌봄청년의 다중적 역할 수행을 통해 부담이 과부화된 상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이 젠더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나 가족관계 등의 역동에 의해 결정되며 권력위계가 낮은 사람이 가족돌봄을 담당한다(Kittay, 2001)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며느리와 딸, 아내에게 집중되었던 가족돌봄 역할이 젠더와 연령, 가족 내 권력관계, 취업 상태와 소득, 주거상황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가 청년의 가족돌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점에 가족돌봄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청년은 도움이 필요한 예외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청년기에 돌봄을 수행하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당면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가족돌봄에 대한 전생애 차원의 사회적 지원의 결여가 증첩된 결과 가족돌봄청년들의 과부화된 부담과 위태로운 삶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둘째, 가족돌봄의 인과적 조건에서 젠더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공통된 조건이나 동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가족돌봄의 동기 및 특성, 결과에서 젠더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돌봄의 성역할과 관련된 젠더 규범이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돌봄의 동기에서는 여성이 성역할 기대로 ‘당연하게’ 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고, 돌봄 수행에서 가족돌봄과 돌봄 대상과 강하게 결속된 상태에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가족돌봄과 결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과 지나친 결속으로 가족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도 더 크게 경험하여 가족돌봄의 부정적인 영향도 여성에게 더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에서 여성이 집안일 부담이 높고,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결과(이수영 외, 2023)와 일치한다.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자해, 자살사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수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2,30대 청년 여성의 자살 사고를 ‘노동 위험’, ‘가족 위험’, ‘돌봄 위험’의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이소진, 2023)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가족 위험’은 가족 내 가부장적 관계나 가족(부모)의 통제와 폭력을, ‘돌봄 위험’은 가정 내 간병과 가사노동이 성차별적으로 분배되면서 시간과 감정이 착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소진, 2023), 본 연구에서 여성 참여자들이 드러낸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가족 위험’과 ‘돌봄 위험’이 중첩될 때의 위기를 보여준다. 한편, 가족돌봄 경험을 진로나 전문적 정체성 등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은 여성들에게만 나타났다. 가족돌봄 경험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모색한다는(“넘어져도 동전을 쥐고 일어나기”) 점에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성들만 가족돌봄 경험을 사회적 진로로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개별 가족 내 돌봄의 여성화가 사회적 돌봄노동의 여성화로 이어지는 연

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남성 참여자들의 가족돌봄 동기는 가족돌봄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으로, 상황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족돌봄을 수행하였으며, 주변과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돌봄 경험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돌봄 경험을 공유할 수 없고, 남성 돌봄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 취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성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주변의 지지와 연결 없이 혼자 책임을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 참여자들은 가족돌봄 결과 개인적 성장과 보람을 경험하였지만, 돌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돌봄 경험을 사회적 정체성화하기보다는 주변화되고 위축됨으로써 돌봄 경험에서 소외되어 진로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박탈감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2021년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고립된 남성청년의 가족돌봄의 극단적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남성청년의 고립된 돌봄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남성 청년들의 고립되고 주변화된 가족돌봄 경험은 자녀 양육에 참여한 남성들의 돌봄 경험이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 변화(‘돌보는 남성성’, ‘하이브리드 남성성’ 등으로 표현된)와 성별분업 해체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것과 대비된다. 자녀 양육 참여 남성들의 돌봄은 아동양육수당, 유급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화된 양육 지원을 매개로 남성육아 콘텐츠의 유행이 더해져 사회적 관심과 지지 속에 촉진되었다. 반면에 남성 청년들의 돌봄 경험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인생에서 하고나면 많은 교훈을 얻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1) 개별적 경험에 머물러있었다. 남성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이 사회적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돌보는 남성성’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과 더불어 돌봄 경험의 확산과 공유를 통해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청년정책의 다양화, 가족돌봄 경력의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통찰을 보여주었다. 조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의 공적 지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돌봄서비스의 미비와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결혼과 출산 및 취업에만 집중된 청년 관련 지원 정책들을 통해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보다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경험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청년에게 부여된 특정한 역할(학업, 취업, 결혼과 출산 등) 밖에서 가족돌봄을 수행하면서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 나아가 가족돌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성 참여자들은 의식 변화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자조집단이나 연대활동 등 청년가족돌봄자로서 사회적 발언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돌봄 경험을 통한 비판적 통찰과 의식 변화는 돌봄자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적 돌봄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는 ‘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of carers)’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최희경, 2014). 본 연구에서 조사참여자들이 보여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의식과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당사자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발언과 활동은 개별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을 공적 의제로 전환하여 돌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가족돌봄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관련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아동, 청년,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분절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가족돌봄을 전생애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혹은 일과 가족)의 양립에서 더 나아가 돌봄과 노동의 통합이 필요하다. 돌봄과 노동의 통합은 인간의 삶을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조직하여 노동에 과부하되었던 시간과 에너지를 새롭게 배분하는 시민성의 재구성을 의미한다(최희경, 2018).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 전망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생애전망이 남, 녀 모두

노동중심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예측(김은지 외, 2019)을 감안하면 노동 중심적 생애경로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은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경력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시장에서의 배제와 주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함선유, 2017; Day, 2019; Hamilton and Adamson, 2013). 따라서 제도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돌봄 경험과 사회적 진로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의 경력화, 혹은 사회적 일자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취업 경력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혹은 보상을 통해 돌봄과 노동의 연계,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가족돌봄의 사회적 경력 인정, 가족돌봄 수당 및 연금 크레딧 제공, 가족돌봄자에 대한 우선적 취업 지원 등이 현실적 방법으로 거론된다(조기현, 2022; 최희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돌봄 경험을 사회적 진로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가족돌봄의 경력화나 사회적 일자리화가 제도화된다면 성별과 상관 없이 다양한 인구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돌봄의 성별분업 해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지원정책이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가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양화하여야 하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정책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생애과업을 전제로 취업과 결혼, 출산 지원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나 사회가 청년이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경로이며, 실제 청년들은 다양한 생애경로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청년 지원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성인지적 고려에 기반한 지원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로 돌봄의 동기과 수행방식, 어려움과 대처방식이 다르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가족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일상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과 위기상황에서의 긴급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거 지원을 통해 돌봄 대상이나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과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남성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고립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특히 또래 가족돌봄청년과의 연계 및 자조집단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을 군 복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등도 남성 가족돌봄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발언권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가족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정체성과 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돌봄에 있어 돌봄자들의 지역적 연계와 지지집단 구성은 가족돌봄자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Nolan, Grant and Keady, 2006; Zimmerman, Litt, and Bose, 2006). 가족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단절된 가족돌봄자들에게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자발적 연대와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족돌봄은 개별 가족의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단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조직화된 가족돌봄자들은 당사자로서 돌봄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의존자에 대한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주변화, 최소화하고자 하는 왜곡된 사회복지 담론에 도전하는 정치적 주체의 역할을 한다(최희경, 2014; McLaughlin et al., 2008).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많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금전이나 서비스 지원과 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연대사업을 통해 사회적인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가족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전체 시민의 일이 된다면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정책과 법규가 제정될 수 있다.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의

연대와 조직화가 시작되었고, 장애인이나 특정질환 가족돌봄자들의 영향력과 활동력이 강화된 결과 각국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들의 요구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정, 실행하였다.⁶⁾ 가족돌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가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을 공적 제도와 사회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젠더나 세대, 취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모든 시민이 가족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3명의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의 돌봄 경험을 인과적 조건과 맥락 조건, 현상과 주체의 대처전략, 중재적 조건과 결과로 체계화하여 이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조사참여자들 중 여성의 수(9명)가 남성(4명)보다 많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자료의 분량과 내용의 다양성이 성별로 불균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조사참여자를 모집하였기에 조사참여자 중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10명)였다.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돌봄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편이며, 다른 가족돌봄청년과의 연대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영국의 1995년 돌봄자 법안(Cares Act of 1995), 2003년의 지역사회돌봄법(Community Care Act), 2004년의 돌봄자 기회균등법(Carers Equal Opportunity Act) 등은 가족돌봄자의 욕구와 권리를 명시하고 가족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최희경, 2014).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2.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세종: 관계부처 합동.
- 권지성·좌현숙·최서경. 2023.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대리가 정위탁 보호아동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의 전환.” 『한국가족복지학』 70(2): 5-42.
- 글래서, 바니·스트라우스, 안셀름. 2017.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역). 서울: 학지사.
- 길태영. 2023. “영 케어러의 가족돌봄 경험: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 적용.” 『한국과세계』 5(6): 227-255.
- 김서영·이재립.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체계 역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3-32.
- 김순남. 2021. “‘남자로서의 당연한 삶은 없다’: 20-30대 남성들의 ‘성찰적 개인화’와 새로운 관계적 삶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155-189.
- 김아롱·정익중. 2023. “영 케어러의 가족 돌봄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70(1): 77-105.
- 김엘리.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36(1): 139-173.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 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통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승·이정은·이의정. 2022. 『해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및 청년(young carer) 지원제도 비교 연구』 서울: 서울시 복지재단.
- 문현아. 2021.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33-63.
- 석재은. 2020.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노인복지연구』 75(4): 117-141.
- 선미정·장정은·김진영. 2022.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 시부야 도모코. 2021. 『영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청년의 삶』. 박소영(역). 서울: 황소길음.

-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 여성가족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서울: 여성가족부.
- 윤이재. 2020. 『아흔살 수퍼우먼을 지키는 중입니다』. 서울: 다다서재.
- 이소진. 2023. “성별화된 위험이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불안: 청년여성의 자살생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9(3):37-72.
- 이수영 · 민소영 · 장연진 · 양효안. 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이윤경 · 김세진 · 황남희 · 임정미 · 주보혜 · 남궁은하 · 이선희 · 정희 · 강은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현 · 김정현 · 우아영 · 윤연숙, 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조기현. 2019. 『아빠의 아빠가 됐다.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보호자 9년의 기록』. 서울: 이매진.
- _____. 2022. 『새파란 돌봄』. 서울: 이매진.
- 지은숙. 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singlehood)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0(2): 189-235.
- 최윤진 · 김고은. 2022. “영 케어러(Young Carer)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29: 155-184.
- 최희경. 2011.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연구.” 『한국사회정책』 18(4): 271-298.
- _____. 201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참여로서의 가족 돌봄자 운동조직 사례연구: 영국 Carers UK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3): 37-70.
- _____.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한국사회정책』 25(3): 103-130.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트론토, 조앤. 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 나상원(역). 서울: 아포리아.
- 패짓, 테보라.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
- 함선유. 2017.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사회보장연구』 33(4): 295-321.
- _____.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5): 34-46.
- 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 2010.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2) 국외문헌

- Addo, I. Y., Aguilar, S., Judd-Lam, S., Hofstaetter, L., and Poon, A. W. C. 2021. "Young Carers in Australia: Understanding Experiences of Caring and Support-Seeking Behavior." *Australian Social Work* 77(2): 1-14.
- Brewer, L. 2001. "Gender Socializa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Elder Caregivers." *Journal of Aging Studies* 15(3): 217-235.
- Becker, S., and Sempik, J. 2019. "Young Adult Carers: The Impact of Caring on Health and Education." *Children & Society* 33(4): 377-386
- Boumans, N. P., and Dorant, E. 2018. "A Cross Sectional Study on Experiences of Young Adult Carers Compared to Young Adult Noncarers: Parentification, Coping and Resil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32(4): 1409-1417.
- Cancian, F. M and Oliker, S. J. 2000. *Caring and Gender*. Oxford: Altamira Press.
- D'Amen, B., Socci, M., and Santini, S. 2021. "Intergenerational Car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Young and Young Adult Caregivers of Older People." *BMC Geriatrics* 21(1): 1-17.
- Day, C. 2019. "An Empirical Case Study of Young Adult Carers' Engagement and Success i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5: 1597-1615.
- Dwyer, J. W. and Coward, R. T. 2002. "Gender, Family and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In J. W. Dwyer and R. T. Coward (Eds.)(4th. ed.) *Gender, Families, and Eldercare*. Newbury Park: Sage. 35-58.
- Finley, J. 1995. "Motivators and Inhibitors of Attitudes of Filial Obligation toward Aging Parents." *The Gerontologist* 28: 112-119.
- Greene, J., Cohen, D., Siskowski, C., and Toyinbo, P.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giving and the Mental Health of Emerging Young Adult Caregivers."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44(4): 551-563.
- Hooymans, N. and George, J. 2005.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Care: Policies for Gender Justice*. (4th. ed.). New York: Sage Publications.
- Kittay, E. (2001).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 *Public Culture*. 13(3): 557-579.

- Hamilton, M.G, and Adamson, E. 2013. "Bounded Agency in Young Carers' Life Course-Stage Domains and Transi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16: 101-117.
- Lewis, J., and Giullari, S. 2005. "The Adult Worker Model Family, Gender Equality and Care: The Search for New Policy Principles and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a Capabilities Approach," *Economy and Society* 34(1): 76-104.
- McLaughlin, J., Goodley, D., Clavering, E. K, and Fisher, P. 2008. *Families Raising Disabled Children: Values of Enabling Care and Social Justice*, Basingstoke: Palgrave.
- Moore, T., and McArthur, M. 2007. "We're All in It Together: Supporting Young Carers and Their Families in Australia,"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5: 561-568.
- Nolan, M., Grant, G. and J. Keady. 2006. *Understanding Family Care*. (3rd, e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Rose, R., and Cohen, K. 2010. "The Experiences of Young Carers: A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Findings," *Journal of Youth Studies* 13: 473-487.
- Stamatopoulos, V. 2019.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180-205.
- Ware, T., Matosevic, T, Hardy, B., Knapp, M., Kendall, J. and Forder, J. 2003. "Commissioning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in England: The View from Care Managers, Users and Carers," *Ageing and Society* 23: 411-428.
- Zimmerman, M. K, Litt, J. S. and Bose, C. E. 2006. "Valuing Carework through Policy and Culture: Communities, States, and Supranational Institutions." In Zimmerman, M. K, Litt, J. S., and Bose, C. E.(Eds.) *Global Dimensions of Gender and Care Work*.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87-304.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영 케어러 첫 실태조사'총체적 부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회의0회."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0021042001#c2b>
 (검색일: 2023.11.05.)
- 한겨레신문. "가족돌봄청년, 우울감 7배 이상 높아." 2023.04.26.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89465.html#ace040u>
 (검색일: 2023.10.13.)

Abstract

A Gender Analysis Study on Care Experiences of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Choi, Hee-Kyung
(Silla University)

In this stud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with 13 young adults aged 19 to 34 (9 female, 4 male) who are responsible for family care in order to examine their care experiences and analyze them by gender. Adopting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xtracted themes were organized into bundles, categorized, and presented by gender.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presented that the heavy burdens of family care passed on to young adults being carried out in an overloaded state with lack of care resources and a poor socioeconomic safety net. In addition to the common conditions and motivations of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gender differences emerged in the motivations,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care, and it was confirmed that gender norms related to gender roles in care are being implemented. Gender role expectations were dominant in women's motivation for care, and in the performance of care, while being strongly tied to family care, there was a tendency to connect it not only to the present but also to social dimensions such as future careers and professional identities. Male participants were characterized by isolated care experiences that failed to connect with other people, and were unable to integrate into their social identity in a marginalized and personalized care experiences. Insights from the participants were revealed regarding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 diversification of youth policies, and social recognition of family care

experienc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integration of labor and care through career-orientation of family care,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young adults and gender-sensitive supports for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and solidarity and organization of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Key words: Young Gender Analysis, Adults Caring for Family,
Care Experiences,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 ┃ 투 고 일 : 2024년 2월 21일
-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7일

